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의 전통 문방구인 ‘떡’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떡은 색의 농담, 번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보존성도 뛰어나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진 1 제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떡으로 그려져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요? 이제부터 떡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을 소개한 뒤, 떡의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떡의 주재료는 무엇일까요?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린 후 화면 전환) 제출된 답변을 살펴보니, 정답이 있네요. 여기 그을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떡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을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떡의 종류는 송연 떡과 유연 떡으로 나뉩니다. 송연 떡은 소나무의 송진을, 유연 떡은 기름을 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듭니다. 송연 떡은 유연 떡에 비해 떡색이 진하지만 번짐의 정도는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두 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럼 이를 잘 드러내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2 제시) 여기 두 개의 선 중 색이 진하고 가장자리가 덜 번진 선이 송연 떡으로 그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송연 떡은 글씨를 쓸 때, 유연 떡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떡의 제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단계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 왼쪽은 그을음 채취 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송연 떡의 그을음은 송진을 가마에서 태워 만드는 반면 유연 떡의 그을음은 기름을 등잔에서 태워 만듭니다. 오른쪽 그림은 채취한 그을음과 아교를 섞은 반죽을 건조하는 단계를 보여 줍니다. 양질의 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죽 후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떡을 자연 건조시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떡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반죽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림 제시) 이 그림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어 반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기포를 빼기 위해 무려 수만 번 이상 손으로 치대야 한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유익했나요? (화면 제시) 여기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에 발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동료 평가를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③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⑤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발표 전 청중 특성 분석	발표 중 청중 반응 분석
㉠ 떡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임.	㉡ 떡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을 선호함.	㉣ 떡의 제조 과정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있음.
㉤ 동료 평가를 작성할 때 참고할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① ㉠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을 고려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면을 보여 주며 스마트 기기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을 고려하여, 청중의 동료 평가를 돕기 위해 자료를 게시한 곳을 화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을 고려하여, 청중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서 제시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예전에 할아버지의 서예 작업을 옆에서 도울 때 떡의 은은한 향기에 놀랐던 기억이 나. 떡의 제조 과정에서 향기를 내기 위한 단계가 있을 것 같아.

○ 학생 2: 떡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어. 특히 송연 떡은 소나무가 많은 지역의 특산품이었을 것 같아. 송연 떡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봐야겠어.

○ 학생 3: 농담이나 선의 표현이 물의 양으로만 조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떡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 ① ‘학생 1’은 발표 대상과 연관된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 모두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기 (가)는 수업 중 학생 대화이고, (나)는 (가)의 활동 이후 학생 2가 작성한 독서감상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지난 수업 시간까지 『영화도 2배속으로 보는 시대』를 같이 읽었잖아. 오늘은 느낀 점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학생 2: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는 걸 새로운 현상으로 소개한 부분이 흥미로웠어.

학생 1: ㉡ 청소년들 모두가 이미 당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한 것이 흥미로웠다는 말이구나.

학생 3: 우리 또래가 모두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아닐까?

학생 1: ㉢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는 어때? 영화를 볼 때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야?

학생 2: 응. 저번 주말에도 그렇게 해서 두 시간 만에 영화 세 편을 몰아 봤는데. 그 덕에 어제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 기능을 계속 사용하게 돼.

학생 3: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봐. 배속 재생으로 봤던 [A] 영화를 우연히 원래 속도로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 뒤로는 배속 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많이 보는 것에만 집착하면 그만큼 놓치게 되는 것도 많더라고.

학생 2: 하지만 영상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달라졌잖아. 너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으로 최대한 많은 영화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

학생 3: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나는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학생 1: ㉣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에 대한 태도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르네. 너희들은 영화를 보는 목적이 뭐야?

학생 2: 즐거위 파악이지. 즐거위만 알면 영화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의 어제 대화를 생각하니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사회적 교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했던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학생 3: 즐거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책에서도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로는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 [B]를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고 했어. 아까 배속 재생으로 봤던 영화를 원래 속도로 다시 봤다는 얘기를 했잖아? 배속 재생으로 볼 때는 놓쳤던 장면에서 느꼈던 감동이야말로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감상한 결과라고 생각해.

학생 2: 너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에서 놓친 의미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 1: ㉤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책을 읽고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다음에 읽을 책은 소설이지? 책을 다 읽고 나서 오늘처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나)

영상의 수가 적어 한두 편만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시청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수십 개의 채널과 다양한 영상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제가 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배경으로 한 책 『영화도 2배속으로 보는 시대』는 영화 한 편을 이삼십 분 만에 보는 사람들에 주목하여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을 활용한 영화 감상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 책에 의하면 이런 기능은 젊은 세대가 특히 많이 활용하는데, 대화에 참여하고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는 이들 세대는 많은 영화를 빨리 보고 그 내용을 사회적 교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영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도 언급한다.

하지만 책에서는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이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반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영화의 장면들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기에,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보면 영화에 담긴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을 대사가 없다는 이유로 배속 재생으로 보거나 건너뛰다면,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다음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책에서는 위의 사례를 통해 즐거위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전개가 느리거나 대사가 없는 장면을 건너뛰고 본다면 창작자의 의도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C]

나는 평소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주말에 시간이 나면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일상에도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래서 책에서 이런 감상 방식을 새로운 현상으로 지칭하는 것이 흥미롭기도 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다른 감상 방식을 선호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동안 내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영화의 즐거위뿐 아니라 영화가 주는 풍부한 의미를 읽어내고 느끼게 되는 감동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좋은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위 파악 말고도 영화가 주는 다양한 의미까지 읽어내기 위한 감상 방법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유된 상황을 환기하며 대화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직전 발화의 의미를 보충하며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다.
- ③ ㉢: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고 있다.
- ④ ㉣: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⑤ ㉤: 대화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추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5.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은 [B]에서 일상의 경험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부정되고 있다.
- ② [A]에서 제시된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은 [B]에서 상대방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하고 있다.
- ③ [A]에서 제시된 대화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은 [B]에서 책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독서 경험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A]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의문은 [B]에서 책의 내용을 되짚던 중 이를 해결할 단서를 찾음으로써 해소되고 있다.
- ⑤ [A]에서 언급된 대화 참여자들의 견해는 [B]에서 책에 나타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6.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학생 2'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문화의 발생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3'이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4문단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화젯거리가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2'가 그동안 영화에서 놓친 의미가 많을 수 있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의 4문단에 영화를 감상하는 다른 방법도 활용하겠다는 다짐으로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2'가 영화가 사회적 교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과 관련지어 제시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3'이 감상 방법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감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 수용자가 영화를 주도적으로 감상할 때의 효과로 제시되었다.

7. [C]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반영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하지만 책에서는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이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반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영화를 빠르게 보면 창작자의 의도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 ① 영화를 원래 속도로 보지 않아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험을 들어 주면 어떨까?
- ② 영화 감상의 목적에 따라 감상 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면 어떨까?
- ③ 영화를 원래 속도로 감상하지 않아 창작자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사례를 책에서 찾아 제시하면 어떨까?
- ④ 영화를 볼 때 줄거리 파악보다는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책의 내용을 강조하면 어떨까?
- ⑤ 영화를 배속 재생으로 볼 때와 건너뛰기로 볼 때 창작자의 의도가 간과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책의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8~10] 다음은 교지 편집부의 요청에 따라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저가의 의류를 짧은 주기로 대량 생산·소비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2015년의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의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의류의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의류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며 확대된 의류 산업은 이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염색에 사용되는 다양한 염료와 표백제는 땅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의류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 오염도 상당하다. 세탁할 때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또한 폐기되는 의류 중 겨우 13%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소각·매립되어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의류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 전반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류 산업으로 인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천연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의류 소재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A]

8. 다음은 편집장이 원고를 의뢰하며 보낸 이메일이다. 초고에서 ㉠~㉣을 반영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장 전체답장 전달 ✕삭제 스패싱고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산업과 환경' 기획 연재와 관련하여 '의류 산업과 환경 오염'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류 산업이 확대된 배경, ㉡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 상황, ㉢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포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① ㉠: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고 해당 시기 의류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제시했다.
- ② ㉡: 환경 오염의 하위 범주들을 설정하고 오염의 정도를 비교했다.
- ③ ㉢: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구별하여 제시했다.
- ④ ㉣: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류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사례를 들었다.
- ⑤ ㉤: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나열했다.

9.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전문가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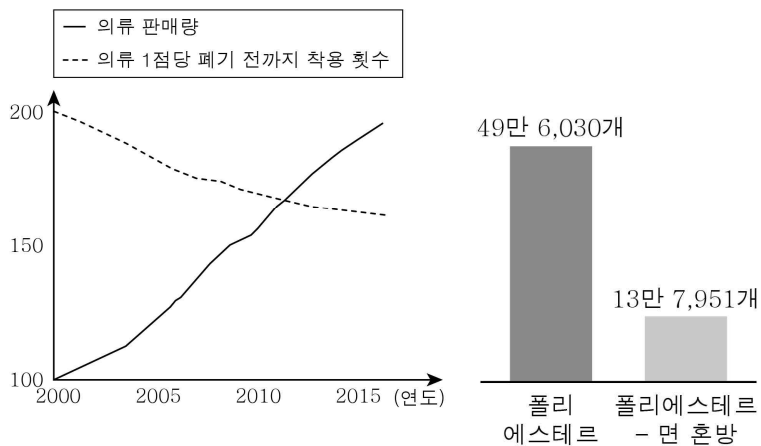
“옷의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한 세기에서 10년, 다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1~2주 간격으로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행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류의 과잉 생산으로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가령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에는 매년 3억 4,2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나) △△ 연구팀 논문 자료

(나-1)은 전 세계 의류 판매량과 의류 1점당 폐기 전까지 착용 횟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나-2)는 4인 가족 1회 세탁량에 해당하는 6kg의 의류를 세탁한 뒤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의류의 소재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나-1)

(나-2)



※ (나-1)에서 세로축의 수치는 2000년의 의류 판매량을 100으로, 의류 1점당 폐기 전까지 착용 횟수를 200으로 보았을 때의 지수임.

(다) 신문 기사

‘미세 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프랑스는 2025년부터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필터 설치 의무화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10. 다음은 학생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A]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는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만 제시되어 있으니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다. 그리고 방안의 실천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지.

- 필요한 만큼의 옷만 구입하여 의류 폐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곧 지구 전체가 의류 폐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 옷의 세탁 횟수를 줄이고, 세탁을 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을 적게 배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다.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도 효과적인 것이다. 무조건 채찍만 휘두르기보다는 당근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 개성의 표현이 반드시 새 옷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고 거래나 재활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한다면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지구는 옷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과 넘쳐나는 의류 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다. 하루빨리 옷의 사용 과정과 폐기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

- (가):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원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류 유행 주기의 변화를 1문단에 추가한다.
- (가): 의류 산업의 확대에 인한 문제점을 환경 오염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 (나-1): 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의류를 많이 사서 적게 입고 버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1문단에 추가한다.
- (나-2): 일정 비율 이상의 천연 섬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 천연 섬유를 혼방할 때의 효과를 3문단에 추가한다.
- (다):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를 3문단에 추가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ㅎ’을 포함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양상은 음운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서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에 해당한다. 거센소리되기는 ‘ㅎ’과 예사소리의 배열 순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ㅎ’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인 거센소리되기이다. 표준 발음법 제12항에서는 ‘ㅎ(ㄸ, ㅊ)’ 뒤에 ‘ㄱ, ㄷ, ㅂ,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과 뒤 음절 첫소리가 합쳐져 ‘ㅋ, ㅌ, ㅍ’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의 예를 보면 ‘농고[노코]’, ‘얹던[안턴]’, ‘닭지[달치]’ 등과 같이 주로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둘째, ‘ㅎ’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인 거센소리되기이다. ‘ㅎ’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인 경우에는 항상 거센소리되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ㅎ’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일 때는 교체나 탈락과 같은 다른 음운 변동보다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되기도 하고 나중에 적용되기도 한다. ‘꽃히다[꼬치다]’, ‘밟히다[발피다]’처럼 어근에 ‘ㅎ’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 예사소리와 ‘ㅎ’이 곧바로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이에 대하여 표준 발음법 제12항에서는 받침 ‘ㄱ(ㄷ), ㄷ, ㅂ(ㅍ), ㅈ(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빛하고[비타고]’처럼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닭 한 마리[다칸마리]’처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다. ‘빛하고[비타고]’는 받침 ‘ㄱ’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 것이고, ‘닭 한 마리[다칸마리]’는 겹받침 ‘ㄷ’에서 ‘ㄷ’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ㅎ’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도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낳은[나은]’, ‘얹아[아나]’, ‘쌓이다[싸이다]’ 등과 같이 용언 어간 말의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이 탈락한다. 원래 이런 환경에서는 어간 말의 자음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야 하지만 ‘ㅎ’은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ㅎ’ 탈락은 예외 없이 일어난다.

1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쌓던[싸던]’은 교체가 축약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다.
 - ② ‘얹고[일코]’는 어간 말 ‘ㅎ’이 어미의 첫소리 ‘ㄱ’과 합쳐져 발음된 것이다.
 - ③ ‘끓이다[끄리다]’는 ‘ㅎ’이 탈락하고 ‘ㄷ’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져 발음된 것이다.
 - ④ ‘끓하고[치카고]’와 ‘하찮은[하차는]’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 ⑤ ‘먹히다[머키다]’와 ‘끓고서[끈코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12. 윗글의 ㉠, ㉡을 중심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낮 한때[나탄때] 내린 비로 이슬이 잔뜩 ㉣ 맺힌[매친] 풀밭을 가로질러 ㉤ 닭한테[다칸테] 모이를 주고 왔다.
- ㉢ 꽃하고[고타고] 바다로 이어진 산책로를 ㉣ 넓히는[널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 ① ㉢: ‘낮’과 ‘한때’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겠군.
- ② ㉣: 어근 ‘맺-’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겠군.
- ③ ㉣: 체언 ‘닭’에 조사 ‘한테’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겠군.
- ④ ㉢: 체언 ‘꽃’에 조사 ‘하고’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겠군.
- ⑤ ㉣: 어근 ‘넓-’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겠군.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과 ‘밥’으로 먼저 나뉜다. ‘볶음’은 다시 ‘볶-’과 ‘-음’으로 나뉜다. 따라서 ‘볶음밥’은 ㉠ ‘(어근+접미사)+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① 집안일 ② 내리막 ③ 놀이터
- ④ 코웃음 ⑤ 울음보

14. <보기>의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의 종류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안긴문장은 문장의 필수 성분을 일부 갖추지 않기도 하는데, 안은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에 공통되는 요소는 생략되기 때문이다.

ㄱ. 여행을 가기 전에 나는 짐을 챙겼다.
 ㄴ. 우리는 그녀가 착함을 아주 잘 안다.
 ㄷ.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ㄹ. 조종사가 된 소년이 고향을 방문했다.

- ① ㄱ의 안긴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② ㄴ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③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 ④ ㄷ과 ㄹ의 안긴문장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 ⑤ ㄱ과 ㄷ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다르지만 안은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높임 표현은 높임 대상에 따라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높임 표현은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 보 기 2 >

[대화 상황]
손님: ㉠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데, ㉡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점원: ㉢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세요. ㉣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손님: 좋네요. ㉤ 저도 어머니를 뵙고, 함께 와야겠어요.

- ① ㉠: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② ㉡: 선어말 어미 ‘-으시-’와 조사 ‘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③ ㉢: 동사 ‘모시다’와 조사 ‘께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 ⑤ ㉤: 어휘적 수단을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포핵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이에 대항해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 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 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한편 ㉠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된다. 반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내포 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 내포 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는데, 이에 따라 ㉤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

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 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pH: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성 수용액의 pH는 7이며,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16. mRNA 백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바이러스 대신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 ②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된다.
- ③ 기억 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유전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 ④ 세포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하여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 ⑤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는 경우와 달리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백신으로 주입한다.

17.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지방산이 세포질에 접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 ② 수용체를 통해 특성의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 ③ 내포 작용이 발생하면 일부가 세포질로 함입되어 엔도솜 구조체를 형성한다.
- ④ 친수성 물질 및 소수성 물질 모두와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의 인지질로 이루어진다.
- ⑤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로 인해 세포 내외의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 외막으로 기능한다.
- ② ㉡와 ㉢은 모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 ③ ㉡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세포 밖에서 ㉠과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서 ㉠과 분리되어야 한다.
- ④ ㉢은 음전하를 띠는 반면 ㉠은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의 정도가 변화한다.
- ⑤ ㉡와 결합하면서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가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19. <보기>는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성 용액에 녹인 mRNA와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을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인다. 그리고 에탄올을 제거하여 균일한 상태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얻어낸다.
(단, 이때 에탄올의 pH는 7임.)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 ①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에탄올이 지질과 섞일 수 있는 소수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이겠군.
- ② m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투입량을 조절하면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균일도가 유지되겠군.
- ③ mRNA가 녹은 산성 용액과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혼합되면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띠면서 이온화 지질과 mRNA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겠군.
- ④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아져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군.
- ⑤ pH가 높아지면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져 소수성 분자간의 인력이 감소하므로 더욱 미세한 크기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형성되겠군.

20.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엔도솜 내부의 pH가 낮아짐에 따라 mRNA와 지질 나노 입자 사이에 전기적인 반발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엔도솜 막의 인산기와 양이온화된 지질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mRNA를 둘러싼 엔도솜 막이 붕괴하기 때문이다.
- ③ 내포 작용으로 세포질에 함입된 세포막이 엔도솜 내부의 산성화에 따라 다시 세포 표면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 ④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됨에 따라 mRNA가 음이온화되면서 mRNA와 리보솜 사이에 결합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엔도솜 내부의 pH 변화로 인해 엔도솜 막이 산성화되면서 체내 효소에 의한 엔도솜 분해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권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는 ㉡전세권이 있다.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삼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삼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 기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까지 부여한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

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 ②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 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 ③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 ⑤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물권이 필요하다.

22.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계약 내용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④ ㉠이나 ㉡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의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일반적으로 ㉡은 ㉠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3.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소액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 ⑤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한 날에 주택에 다른 물권이 성립되면 임차권은 새로운 물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 주택을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되었다. 을은 2021년 2월 5일에 A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를 하였지만 계약 기간 내내 확정일자 받지 않았다. A 주택에 거주해 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 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4일에 갑에게 기존의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갑은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①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③ 을은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 ⑤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25.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우선변제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 ② 소액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 ③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면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 ④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보다도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 ⑤ 원래의 임차인과 달리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게오르크 짐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짐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를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실내에 대한 짐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발터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베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둔은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를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데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이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 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 공적이기도 않고 사적이기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다.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하였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 재료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건축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주거 문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특정 도시의 다양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이를 시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대비하고 이들 공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 ⑤ 실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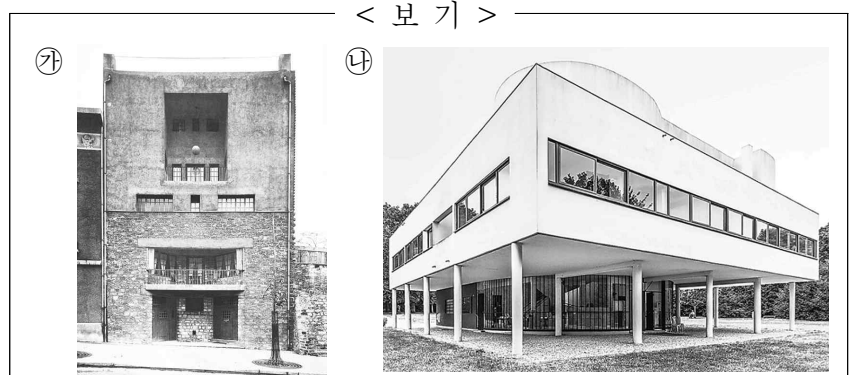
27.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 일상의 심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신경과민 상태의 개인이 내면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이라고 보았다.
- ③ 양식화된 공예품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개성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 ④ 양식의 보편성을 매개로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도시적 삶에서 오는 자극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면으로의 침잠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28. 윗글의 베냐민의 관점에서 본 '파사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행의 교체를 통해 욕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②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점들이 배치된 공간이다.
- ③ 거리와 실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④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지어진 공간이다.
- ⑤ 사적 공간에서 칩거하는 시대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시대로 이행 중임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로스가 지은 '차라 하우스'이다.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가구, 공예품 등을 배치하기 좋도록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바닥 등은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어 있다. 건물의 한쪽 면에만 배치된 창을 통해 외부를 차단하고, 채광을 조절하여 은신처의 아늑한 느낌을 유지한다. ㉡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지은 '빌라 사보아'로, 신건축을 대표하는 주택이다. 철골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은 내부를 넘어 외부 풍경으로 열려 있는 공간을 구현하였다.

- ① 채광을 조절하여 아늑한 느낌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베냐민은 외부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건물의 한쪽 면에만 창을 배치하여 외부와 차단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거주자가 내면을 지키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어 거주자가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④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을 통해 외부로 향해 개방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베냐민은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⑤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를 통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30.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고 말았다.
- ② 어디서 묻었는지 얼룩이 잘 빠지지 않았다.
- ③ 중요한 회의니까 오늘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 ④ 그동안 잘 진행되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 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의 지원 서류가 빠지고 없었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볼쏘냐.
 ㉣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봉어회에다 넣어, 썩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희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썩 파서 격양가*를 부르께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

- * 무희씨 때 사람, 갈천씨 때 백성: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무희씨와 갈천씨 때의 태평성대의 사람.
- * 삼대일월: 중국에서 왕도 정치가 행해졌던 하·은·주 시대.
- * 격양가: 중국 요 임금 때 늙은 농부가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천하가 태평하다며 불렀다는 노래.

(나)

자연은 왜 존재해 있나?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다.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불가사의다.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그의 침묵, 그의 성격이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캐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 능력은 직감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금강산에 어떠한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도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없는가? 경승지에 가려면 문헌부터 뒤지는, 극히 독

자(獨自)의 감각력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다.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금강산은 금강산이라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해 있던 것이다. **옥녀봉**이니 **명경대**니 하는 이름과 전설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본래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무근지설이다. **소문거리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니 열두 폭이니 하고 **계산된 삽화**로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야 무엇인가.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 간에 그들은 태고 때부터 항구히 살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은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늘 문헌과 전설이 무슨 상관인가. 고완품이나 고적이라면 모르거니와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인 자연에게 있어 문헌이란 별무가치인 것이다.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에 수족이 묶인다. 고완품을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불유쾌다.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두라. 예술가에게는 언제, 어디든지 가 신대륙, 신세계여야 할 것이다.

- 이태준, 「자연과 문헌」 -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문답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물 간의 경계가 사라진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일상의 사물에 빗대어 화자를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의지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나열하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자연물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취흥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읽고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고, (나)의 작가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추구한다. 이들은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

- ① (가)의 ‘물가에 갈매기’가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라는 구절에서 어울림에 영속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작가가 자신을 ‘무희씨 때 사람’, ‘갈천씨 때 백성’과 동일시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영속되는 가치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라는 구절에서 전란이라는 일시적인 요소가 ‘태평한 세상’이라는 영속적인 가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옥녀봉’, ‘명경대’와 같은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라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에서 ‘문헌’은 ‘소문거리의 ‘모델’, ‘계산된 삽화’를 양산함으로써 자연의 영속적인 본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34. (나)의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탐구에 임해야 한다.
- ② 직관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③ 여러 기록을 참고하며 자연의 새로운 경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경승지를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 시편을 인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내력을 소재로 삼아 자신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줄기 역할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전,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느 임금의 능 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의 푸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른빛을 띠고 있었다. ㉠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거뒀음으로써 잔디의 누른빛을 회갈색으로 바꿔 가고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전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는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은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 의상 아닌 녀마를 걸친, 한 목숨당 3백 원짜리 포졸들을 폴베듯 베어 나갔다.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 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걸리기 시작했다. ㉢ 늑막음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하여 드러내 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 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베는 시늉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했음에 틀림없었다. 진검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 은분을 바른 것이었으므로 외상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었으나 옆구리로부터 가슴께까지 저려드는 듯한 동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는 참아야 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동통은 더욱 무겁게 저려드는 듯했다.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치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 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의 저 타르르 하는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꼈다.

어디선가 3백 년 전의 포졸이 낫선 듯도 하고 낫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자네도 별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회부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씨가 오늘의 첫 번째 3백 원을 쥐여 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야간 촬영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따라나섰다.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하여 최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백 원을 쥐여 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빵꾸를 냈다고 일컫는다.)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

당한 의식 속에 있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㉔ 단지가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앉아 있다는 사실과 이 버스가 아마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 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망막에 비쳐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그리고 참,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백 90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의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도 행운이라는 점.....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그것도 분명치는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것 역시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한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그가 마약 오른발로 땅을 내려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선뜻! 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발이 땅에 닿은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물벼락을 맞은 듯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뻗뻗해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는 차고 습기 낀, 죽음의 외각을 던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뻗뻗하고 불편했으나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도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의 불빛처럼 보였다.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관 직전의 사자(死者)**를 뜻한다던가?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이 죽은 것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 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짝이다. 아내는 죽음을 배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뜨끔뜨끔 걸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여서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했다.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이것은 튼튼하구나! 마치 반석과도 같군!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돼 왔다. 그래, 그건 죽음의 짝이 아니다. 그렇게 불려선 안돼. 그는 걸음을 빨리했다.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주머니에는 지금 일금 5백 90원이 들어 있다. 그래, 쇠고기를 한 근 사자. 식육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 앞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듣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식육점의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 조해일, 「매일 죽는 사람」 -

3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의 회상을 교차하여 서사 전개에 입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액자식 구성을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6.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장균 역을 맡은 배우는 베는 시늉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가격 당했다고 느꼈다.
- ② ‘그’는 매우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야간 촬영 제안을 받아들였다.
- ③ 두 번째 촬영에서 주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아 ‘그’는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 ④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수중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금이 있었다.
- ⑤ 버스에 오른 ‘그’는 몇몇 승객의 시선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꼈다.

37.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주변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인물들에 대한 처우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이들이 맡은 배역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㉓: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배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절박한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④ ㉔: 상황을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이 느끼는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의식한 내용을 나열하여 인물의 피로감을 부각하고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삶과 죽음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항상 우리 곁에 동시에 존재한다. 삶은 죽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며 생(生)에 대한 감각과 의지는 죽음을 가까이할수록 강해진다. 「매일 죽는 사람」은 살기 위해 매일 죽음을 연기해야 하는 인물을 통해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3백 원’을 받으려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야 하는 ‘그’의 모습은 단역 전문 배우로서 죽는 역할을 맡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죽은 척하고 쓰러진 ‘자기의 목구멍’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를 느끼고 ‘3백 년 전의 포졸’의 속삭임을 듣는 ‘그’의 모습은 삶의 과정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하는군.
- ③ ‘입관 직전의 사자’를 떠올리며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는 것은 ‘그’가 삶을 죽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시사하는군.
- ④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져 있는 발’로 걸으며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장외의 불빛’ 같던 불 중에서 ‘식욕점의 불그레한 불빛’에 주목하게 된 것은, ‘태아’를 ‘죽음의 싹’으로 단정짓는 인식에서 벗어나 생의 감각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것에 대응하는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생이 답을 넘어 돌아가게 해 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녘에 나갔다가 ㉡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최씨는 ㉣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최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아버님, 어머니. 길러 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뿥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 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서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신의 없는 도련님이 한 번 가씨 집안의 향을 흠친 뒤로 원망이 천 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리디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 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 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최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 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A]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품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B]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 택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대요.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택을 속인 것일 겁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고하자 최씨 부친이 말하였다.
 “납채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축을 밝힐 날짜만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생은 집안에서 최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 ② 향아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알린다.
- ③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다.
- ④ 최씨는 이생과의 만남을 부모에게 숨기다가 끝내 사실대로 고백한다.
- ⑤ 최씨 부친은 최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중매쟁이를 이생 집에 보낸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한편,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 ② ㉡은 이생이 집에 돌아오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이생이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이생 부친의 단호함을 함축하는 한편, 이생과 최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 ④ ㉣은 최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 ⑤ ㉣은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드러내면서, 최씨가 느끼는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B]는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B]는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⑤ [A]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B]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낸다. 이들은 담장의 제약에 일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최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타개한다.

- ① 이생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언급하며 다시 ‘담을 넘어 돌아가’는 것은, 최씨와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겠군.
- ②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는 이생 부친은,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생의 모습과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씨의 모습은, 규범적 질서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최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하며 ‘혼기’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한 것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했기 때문이겠군.
- ⑤ 최씨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며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둘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쫓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 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 윤동주, 「소년」 —

* 쫓어: 씻어.

(나)
[A]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별을 쪼이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B]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C]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D]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별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 김기택, 「봄날」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연쇄법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지시어의 연속적 배치로 대상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에 제시된 자연물들은 서로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변용된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맞닿은 주체의 신체적 변화를 유발하고 내면의 정서를 표면화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주체의 변화는 자연물의 속성에 조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 ① ‘하늘’을 ‘들여다 보’려는 소년의 ‘눈썹’에 든 ‘파란 물감’은 자연물의 속성이 주체에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낸다.
- ② ‘따뜻한 불’을 만지는 소년의 행동은 ‘하늘’과 연결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이룬 소년의 ‘황홀’함을 환기한다.
- ③ ‘손바닥’에 묻어난 ‘파란 물감’은 ‘손금’으로 스며들면서 ‘맑은 강물’로 변용되어 제시된다.
- ④ ‘강물’에 ‘순이의 얼굴이 어리’는 것은 소년이 ‘강물’의 ‘맑은’ 속성에 조응해 ‘아름다운 순이’를 떠올린 것임을 드러낸다.
- ⑤ 소년이 ‘황홀히 눈을 감’아도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는 것은 ‘순이’가 소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대상임을 드러낸다.

45.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햇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는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할머니들의 모습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② [B]의 ‘잘만 하면’이라는 시구는 ‘아지랑이’뿐만 아니라 ‘뽀얀 젖살’까지 상상하게 되었음을 부각하여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③ [C]에서 화자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모두 눈부신’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여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④ [D]의 화자는 ‘푸른 망울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 할머니들에 주목하여 봄의 생명력에 기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군.
- ⑤ [E]에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화자는 이를 ‘한나절 한눈을 팔’던 ‘환한 빛’으로 인해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